

호텔·레저

[INDUSTRY BRIEF]

10월 출국자 수 고른 성장 지속 반면, 여전히 아쉬운 인바운드

2017/11/23

■ 면세점: 10월 국내 면세점 매출 전년동월대비 12.2% 증가

10월 내국인 매출액은 전년동월대비 0.7% 성장, 외국인인 16.4% 성장하며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면세점의 주요 고객이 중국인임(시내 면세점 약 70%, 공항 면세점 약 30%)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 면세점 매출 성장은 타이공(중국 보따리상)이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당분간 타이공의 국내 면세점 매출 견인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 회복 시, 타이공 + 관광객 매출 성장은 물론 타이공에게 제공하는 높은 할인율(품목별 5~15% → 30~40%까지 상승)이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 회복도 기대된다. 당사 커버리지인 호텔신라의 4Q17 별도 면세점 매출액은 7800억 원(+10.9%, YoY), 영업이익은 257억 원(2.1%, YoY)으로 예상한다.

■ 아웃바운드: 월별 고른 성장세 예상, 여행관련 지출액도 뒷받침

내국인 출국자 수(승무원 제외)는 20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했다. 출국자 수의 월별 두 자리 수 성장과 더불어 1) 여행비 지출 역대 최대 기록<그림5>, 2) 해외 카드 사용액도 매분기 신기록을 달성<그림6>하며 출국자 수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등의 사용으로 월별 고른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10월 장기 추석 연휴가 포함된 4분기 여행 업체들의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

■ 인바운드: 항공좌석 부족으로 전년동월대비 26.6% 감소

10월 주요 방한 국가들의 외래객 입국자 수 증감률은 중국(-49.3%), 일본(-20.9%), 대만(+9.5%), 홍콩(-12.7%), 태국(-1.5%), 필리핀(-22.2%), 말레이시아(-10.7%)로 집계됐다. 중국은 9월(-56.1%)에 이어 입국자 수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4>. 한편, 12월 한중 정상회담,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등 한중 해빙무드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도 中 단체 비자 수수료 감면 연장, 동남아 3국 단체 한시 무비자, 지정 크루즈 중국인 내년 한시 무비자 등 각종 비자 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한중 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관광비자 승인부터 모객 확보까지의 과정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는 데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면세점 및 여행업체의 수혜가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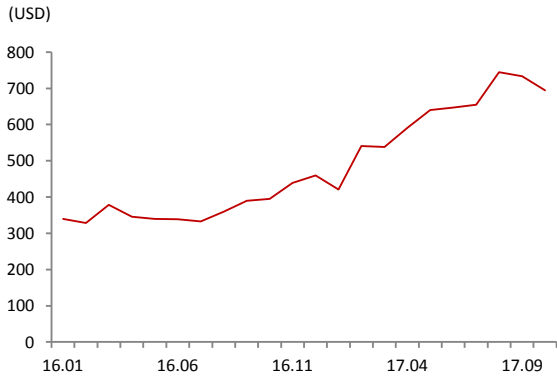
호텔·레저/미드스몰캡

Analyst 조경진

(2122-9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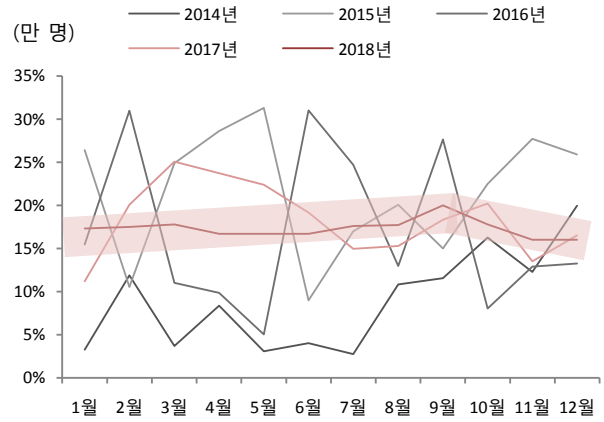
kjcho@hi-ib.com

<그림 1> 면세점 외국인 월별 객단가는 2016 년 약 \$370 에서 2017 년에 들어서며 두 배 가까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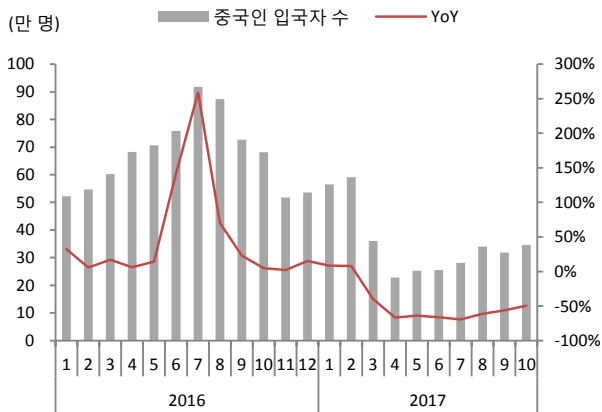
자료: 한국면세점협회, 하이투자증권

<그림 2> 최근 5 개년 출국자 수 전년동월대비 성장률 추이: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완화된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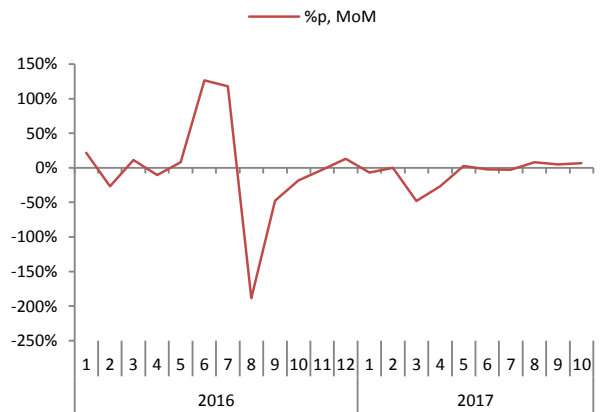
주: 17년 11월 이후는 추정치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3> 월별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감률은 8 월을 기점으로 회 복세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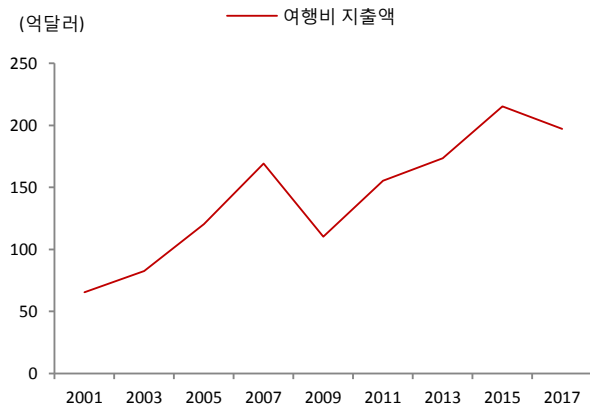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4> 역성장하던 중국인 관광객 수는 8 월부터 전월대비 소폭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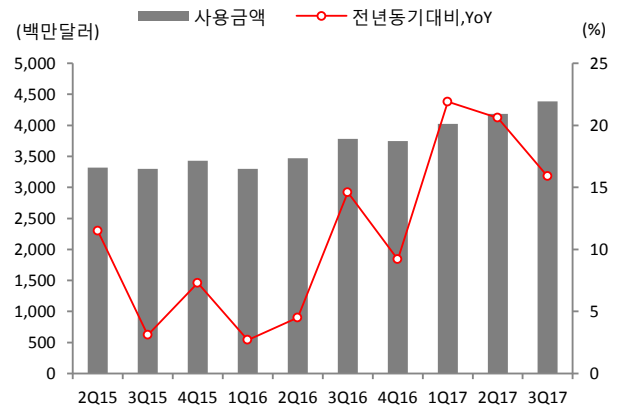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5> 여행비 지출액은 매년 최고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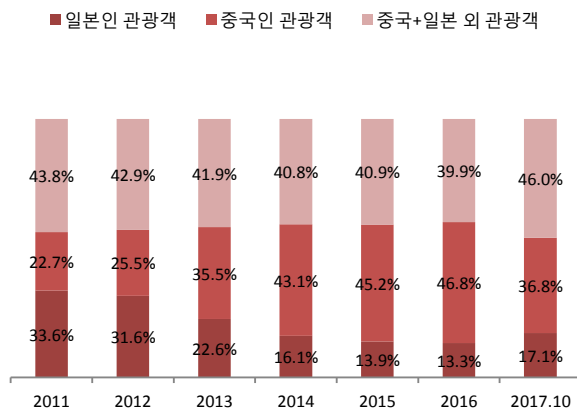
주: 2017년은 1~9월 누적기준
자료: 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

<그림 6> 내국인 출국자 해외 카드 사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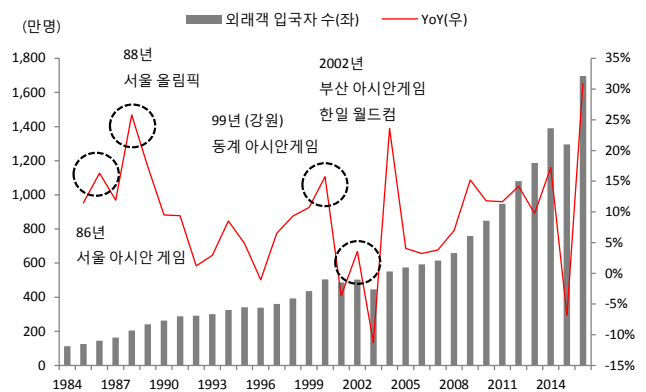
자료:한국은행, 하이투자증권

<그림 7> 외래객 방문객 중 중국 및 일본 비중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이투자증권

<그림 8>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던 해에는 입국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이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조경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7-09-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자의견 비율(%)	88.3%	11.7%	-